

세상의 틀을 바꾼 의사 누가

누가복음 1:1-4, 사도행전 1:1-2

정윤돈 목사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작정된 한 날을 택하여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축복을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평생 예배에 성공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배중심, 교회중심, 복음중심, 그리스도중심, 전도와 선교의 중심, 후대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이 자리에 온 많은 성도들이 여러 가지 많은 기도제목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응답과 해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강단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을 사실적으로 적용하며 우리가 도전하고 실천할 수 있는 힘과 능력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그리스도 되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만약에 엘리트들이 겸손하게 말씀을 받아들이고, 교회에서 중요한 헌신을 맡았이 하면서 본을 보인다면 이것보다 더 큰 전도의 문은 없을 것이다. 제가 아는 한 분이 계시는데 참 똑똑하시지만 사회에서 험악하게 사셨다. 그런데 아는 것이 참 많으셨다. 건달의 대부 역할을 하셨는데 국립호텔(교도소)을 많이 다니셨다. 교도소에 왔다 갔다 하셨다. 꼭 예배드리러 오시고 아들, 딸도 늦게 낳았는데 데리고 오셨다. 한양대학교 병원에 수술하러 입원했는데 거기 계시는 훌륭한 교수님이 수술하기 전에 ‘기도하십시오.’ 했다는 것이다. 교회에 가 본적도 없고 교회는 못난 사람만 다니는 곳이라고 생각하며 부정적이었는데 존경스러운 의학박사가 기도하자고 하니가 무엇을 두고 기도하는가, 하나님이 어디 있다고 기도하나 하니가 ‘저희가 하는 일이 있습니까. 우리는 자르고 창자 꺼냈다가 다시 넣는 것 밖에 없습니다. 그 안에서 다시 자리 찾아가는 것이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 후로 ‘저 분이 믿는 하나님을 내가 믿어야겠다.’ 생각했다는 것이다. 험악하게 살아왔기 때문에 나름대로 갈등이 있었는데 지금은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을 보면서 한 명의 엘리트가 주는 영향이 참 크구나 생각했다. 우리는 많이 알수록 축복이니 겸허해야 한다. 류목사님이 자주 말씀하시지 않는가. 특수방위를 하셨는데 4성 장군 출신 앞에서 대화를 하는데, 그 분이 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렇군요.’ 하면서 받아들였다는 것이다. 대화를 하면서 섬뜩한 것이다. ‘내가 군대에 대해서 무엇을 안다고 저 분은 저렇게 겸허하게 받아들이는가.’ 굉장한 인격인 것이다. 우리는 사회지위가 높으면 교만해지지 않는가.

오늘 본문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이렇게 겸손하게 헌신한 엘리트 누가와 데오빌로라는 각자가 나온다. 로마에서 높은 지위에 있었던 사람이다. 영적 소통을 통해서 완성된 복음의 시대적인 작품이 바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인 것이다. 모든 성도들과 후대들은 이러한 응답을 누리기를 축원한다.

골로새서 4장 14절을 보면 사도바울은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대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누가가 의사가 맞나요? 하는데 오늘 본문에 나온다. 누가를 그냥 의사라고 하지 않고 사랑받는 의사 누가라고 말한다. 그래서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봤을 때 누가의 직업이 의사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페이스북은 불신자상태를 보는 장으로 생각하는데 미국에 어떤 분이 우리 박사집사님에 대해서 글을 쪽 썼다. 본인이 다른 교회로 옮기셨는데, ‘한국박사들 중에 최정역할을 한 사람이 있다. 주일날 와서 겸허히 봉사하고 기타를 치는 겸손한 모습이 너무 은혜로운데 응답받아서 다른 지역에 갑니다.’ 하고 그 분에 대해서 글을 썼다. 그런데 그 분이 우리 참사랑교회 출신이다. 너무 감사한 것이다. 여러분이 훌륭하고 뛰어난수록 겸허함을 유지하기를 바란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할 수 있다. 우리가 왜 상처를 입고 빠지는가. 교만하기 때문이다. 성경에 보면 노예가 일을 하다 왔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우주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도 이 땅에 섬기러 오셨다. 또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하신 것은 자신을 배신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셨다. 그 중에는 가롯 유다도 있었다. 저 자는 자신을 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셨다. 영적 문제, 인간의 문제, 많은 문제가 바로 교만하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다. 그래서 흑암의 세력은 어떻게 꺾이는가. ‘사단아 물러가라.’ 하면 꺾이는 것이 아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남들이 나를 비난해도 ‘그래, 저 사람이 나를 비난하는 것보다 나는 나쁜 사람이야.’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나를 죽이던 흑암이 꺾이는 것이다. 그런데 내가 어쩔 수 있고 내가 잘났고. 하면 사단이 날개를 핀다. 양보해 버리면 흑암이 꺾인다. 그것이 빛이다. 그것이 소금이다. 흑암이 꺾이는 방법이다. 이변에 바누아투에 가서 국회의원장, 국회의원들을 보면 옆집 아저씨 같다. ‘저 분이 국회 부의장 맞는가?’ 할 정도로 온유하다. 저 자리에 설 만하다. 생각이 들었다. 앞으로 하나님이 램뉘트들에게 많은 응답을 주실 텐데, 그 때 겸손하기를 바란다. 내 주장하지 마라. ‘이것 안 돼, 저것 안 돼.’ 하는 것은 수준 낮은 소리인 것이다. 하나님의 성령인도 따라 가야 한다. 우리는 다 양보하고 싸우지 않는다. 영적인 놀라운 축복을 아니까. 그 영적

인 축복은 하나님이 나와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영세 전에 선택 하시고 영원까지 완벽하게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데 싸우고 다투고 강조할 필요가 없다. 소통하고 대화는 필요하지만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하나이다.’ 항상 우리는 이런 고백이 필요하다. 여러분이 이렇게 하면 응답받지 말라고 해도 계속 응답이 오게 되어있다. 사실 나 때문에, 내 주장, 내 욕심 때문에 응답을 막고 있는 것이다.

의사 누가, 데오빌로는 주님의 구원을 받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완전히 새 틀로 바뀌었다. 그래서 거듭났고 세상을 정복하고 작품을 남길 수 있었다. 그런데 의사 누가는 어떻게 보면 갑자기 특 떨어진 사람 같다. 마가는 마가다락방의 아들이라고 알고 있다. 마태는 예수님이 따라오라고 하셨다. 요한은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였다. 우리가 다 아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누가는 어디서 나타났는가. 가장 중요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썼는데 어디서 왔는지 모른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사도행전 16장 11절부터 ‘우리’라고 1인칭 복수를 쓴다. 그 전까지는 단수를 썼다. 누가는 바울이 2차 여행 중 드로이부터 동행하게 된다. 우리는 보통 마게도냐에서 손짓한 사람이 누가였거나 누가를 만나기 위해 했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다. 우리는 보통 루디아라고 생각했는데 어떤 신학자의 말이 일리가 있다고도 생각된다. 사도행전 16장 11절에 보면 우리라고 시작한다. 역사에 ‘트로이의 목마’가 나오지 않는가. 성경에서는 드로이인 것이다. 누가라는 이름의 뜻은 ‘빛나다’라는 뜻이 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로마의 고위관료인 데오빌로에게 보낸 편지형식의 성경이다. 누가복음에 보면 각하라는 말이 나온다. 사도행전 1장 1절에 보면 ‘데오빌로여’ 한글말로 보면 반말을 쓴다. 그 사이에 제자가 된 것이다. 처음에는 ‘각하’여해야 하는데 양육하다보니가 말을 낮출 정도로 제자가 된 것이다. 영어나 헬라어에는 존댓말이 없으니까 정확한 것은 모르겠지만 한국어의 뉘앙스를 보면 그런 것 같다. 사복음서의 저자 중 누가만이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이었다. 그러나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가장 세밀하고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다. 또한 사복음서의 저자 중 유일하게 예수님을 직접 만나보지 못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누가는 예수님의 공생애 기간 동안의 내용을 그래서 현장에 가서 다 조사하고 기록한 것이다.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여자들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온다.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을 12살 때 잃어버리고 다시 찾은 이야기,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에게 충분히 듣고, 이야기하고 기록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축자영감설,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감동을 주어서 성경을 기록한 것이 아니다. 누가복음 1장 2절에 보면,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 된 자들이 전하여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라고 기록되어있다. 많은 기록과 자료, 만남을 통해서 누가복음을 적은 것이다.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은 헬라어 원어 중에서 굉장히 고급언어를 썼다고 한다. 사람들이 깜짝 놀랄 정도이다. 그러니까 그만큼 누가가 엘리트였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내용이다. 그렇다면 누가는 언제, 어디서 이런 자료를 수집했는가. 누가는 이방인이어서 예루살렘 땅에 가 본적이 없다.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여행 때 예루살렘에 가게 되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잡혀 2년 동안 연금된 상태로 있게 되었다. 그때 누가가 현장을 돌아다니며, 말씀을 정리했다고 보고 있다. 그래서 오늘은 누가복음에 담겨있는 복음과 전도, 선교에 대한 대표적인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번 주 성취될 강단의 말씀을 나누고자 한다. 누가가 기록한 이유는 두 가지이다. 첫 번째는 복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그리스도가 말한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자료를 수집했을 것이다. 두 번째는 주님이 가르쳐 준 전도와 선교가 알고 싶어서 쓴 것이다.

1. 누가복음에 나타난 복음의 말씀에 대해서 몇 개의 본문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32절의 말씀은 복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마태가 예수님을 믿고 세리를 모아놓고 잔치를 했다. 그 때 예수님이 같이 식사했다. 그랬더니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왜 죄인들과 식사를 하냐고 물어보는데 예수님이 그 때 복음을 전한다. 누가복음 5장 30절에서 32절에 보면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31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나니.’ 32절에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이것이 바로 누가가 발견한 그리스도 복음의 메시지가이다. 노방전도를 하며 과거에 교회를 개척했는데,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들어보셨어요?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셔야죠. 하니가 나이가 60세가 넘는 분이 들으시고 ‘저는 죄를 너무 많이 지어서 교회에 못 갑니다.’ 한다.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감동스럽고 존경스러웠다. 어떤 분은 ‘내가 무슨 죄가 있는데?’ 하는데 은혜가 없는 사람이다. 바르게 살수록, 효도를 할수록 자신이 불효자라는 사실을 안다. 공부를 안 하는 사람은 자신이 얼마나 무식한지 모른다. 그런데 공부를 할수록 내가 얼마나 모르고 있는지 알게 된다.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모른다.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복음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구나. 알게 된다. 주님은 나 같은 죄인을 살리러 이 땅에 오신 줄 믿기를 바란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예수님이 훌륭한 이야기를 하는 선생님이 아니다. 윤리, 도덕을 가르쳐 주러 오신 분이 아니다. 우리는 윤리, 도덕적으로 훌륭할 수 없다. 이중, 삼중, 사중, 오중생활하고 있다. 주님이 아니면 우리는 죄 씻음 받을

수 없다. 주님 알면 약간 착할 수는 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 오직 주님만으로 가능하다. 내가 곧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이야기 한다. 그것을 두 단어로 '오직 예수'라고 말한다. 이 복음을 땅 끝까지 전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란다.

(2) 누가복음에 나오는 복음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에 나오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이다. 이 이야기의 의도는 예수 믿는 사람은 거지같이 가난하게 살아야 훌륭한 성도라는 것이 아니다. 이 예화의 핵심적인 이유는 무엇인가? 부자로 살다가 지옥에 가는 것보다 경제적으로 어렵게 살아도 구원을 받는 것이 인생에서 가장 시급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많은 문제에 집착하며 살다가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으로 달려가고 있는 사람이 많다. 복음이란, 이들에게 지옥 문제를 알려주는 것이다. 이번 주에 이한수 장로님이 돌아가셨는데, 지난번에 요양원에 심방을 갔더니 하루 종일 성경만 보신다고 한다. 나오면서 생각하기를 '저렇게 성경만 보시니 성령 충만해서 100세까지는 사시겠다.' 했다. 돌아가셨다는 말을 듣고 굉장히 아쉬운 마음이 들었지만 은혜가 되는 부분이 있었다. '하나님 앞에 합격했구나. 정말 천국가고 싶었구나. 어떤 분들은 어떻게 해서든 살려고 한다. 그러나 이한수 장로님은 성경을 통해서 정말로 천국을 사모했구나.' 생각이 들었다. 요양원에 가면 많은 분들이 더 오래 사신다. 그런데 주님을 바라보는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다.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지 집중한다. 그러면서 천국과 멀어진다. 교만하다. 우리 가정은 어떻게 해야 하고, 직장은 어떻게 다니고, 어디에 여행하고, 누군가는 어떻게 사업을 하고, 다른 것에 집중한다. 부자가 호화호식 하다가 어느 순간 주님이 데려가셨다. 여러분이 어리석은 부자로 살아가지 말기를 바란다. 확실하게 천국 보장을 받고 이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기를 바란다. 이 이야기를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보냈다. '데오빌로야. 너는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돈 있는 부자이지? 그런데 죽으면 지옥에 가. 이런 부자의 삶을 살아서는 되겠어? 이 복음을 전하면 영원하다. 로마 군인에게 잡혀서 목이 날아가도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자.' 누가는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적용을 했을 것이다. '내가 누가를 만나지 않았으면 부자같이 살다가 죽었을 것이다.' 데오빌로는 이런 마음으로 읽었을 것이다.

(3) 누가복음 5장 17절에서 26절 이 말씀은 복음의 말씀이다.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인간의 죄를 용서해주시실 권세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다. 이 본문에는 예수님이 중풍병에 걸린 병자를 고쳐주신다. 우리 같으면 중풍병자가 있으면 '너의 병이 나았다. 내가 너를 치료하였다.' 하는 게 맞는 것인데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에 대해서 유대인이 말한다. '네가 뭘데 죄 사함을 해? 그건 하나님 밖에 못 하는 것인데.' 이 말은 자신이 하나님과 동등하다는 말이다. 참람하다는 것은 신성 모독의 뜻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가복음 5장 23장에 말한다.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이 말은 '내가 일어나 걸으라 이야기하면 너희에게 시비될 말이 전혀 없다.' 누가복음 5장 24절에 말씀하신다.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아마 서기관과 바리새인 일부는 못 알아들었을 것이다. 누가와 참 제자들도 처음에는 깨닫지 못했을 것이다. 베드로도 깨닫지 못했다.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성령이 역사하니까 예수님이 했던 말씀이 모두 깨달아지는 것이다. '그 분이 예수님이셨구나. 태어날 때부터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구나. 그러니까 죄를 사할 권세를 가지시는 분이시구나.' 퍼즐이 맞아 떨어지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들의 모든 죄를 해결해주시실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계신 유일한 분임을 믿기를 바란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근본문제를 해결해주신 주님인 줄을 믿기를 바란다. 이 사실을 믿는 것이 복음을 믿는 것이다.

2. 누가복음에 담겨있는 전도와 선교에 대해서 대표적인 말씀을 몇 가지만 나누고자 한다.

(1)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부를 불러 전도자로 세우셨다. 제자들이 다 어부출신이다. 가만히 묵상해봤다. 왜 고기 잡는 어부를 부르셨을까. 목동들도 많다. 양을 치는 것과 목회하는 것이 비슷하다. 고기를 잡으려면 바다의 물 흐름을 잘 알아야 한다. 나도 바닷가 사람이기 때문에 물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잘 안다. 바닷가에 돌이 있어서 동네 아이들이 다이빙을 하며 놀곤 했다. 나중에 어떤 아이가 해가 어두워졌는데 다이빙을 하다가 죽었다. 밤이 되면 물이 점점 빠지는데, 그 아이는 사람들이 안 볼 때 혼자 다이빙 연습을 하려고 뛰어든 것이다. 물때를 잘 모른 것이다. 우리가 살려면 때를 잘 알아야 한다. 어떤 분은 낚시 하러 새벽에 가는 분들이 있다. 초등학생에게 전도하러 6시에 가면 다 집에 가고 없다. 개인의 시간표, 인생의 시간표를 잘 알아야 한다. 전문 낚시꾼과 어부들은 아무 고기나 잡지 않는다. 작은 고기들은 다시 방생해주고 자신들이 원하는 큰 물고기만 잡는다. 전문 낚시꾼들은 본인이 원하는 것을 잡으려고 한다. 천국에도 그렇다. 많은 고기가 있는데 좋은 고기는 먹고 남은 고기는 다 버린다고 했다. 그러한 제자를 말하는 것이다. 좋은 땅, 좋은 씨를 말하는 것이다. 그러한 제자가 되기를 바라며, 그러한 제자를 만나기를 바란다. 마가

의 다락방에서 헌신한 마리아와 같은. 믿지 않았는데 복음을 전하니 확 받아들이서 믿는 그런 제자. 팔라왕의 전체 문이 열리지 않았는가. 월척인 것이다. 그러한 제자와 만남이 있기를 바란다.

고기를 잡으려면 인내가 필요하다. 밤새 하는 경우가 있다. 진짜 큰 고기를 잡으려면 원양어업을 해야 한다. 이 원양어업을 영적으로 재해석하면 선교하라고 할 수 있다. 진짜 제자는 선교 속에서 발견하게 된다. 이번에 일본에서 온 제자에게 큰 일을 맡겼다. 그 제자가 복음 메시지를 잘 전달하는 것이다. 일본 사람에게 복음을 사랑하고 복음시스템을 잘 따라간다. 선교 현장 속에서 큰 제자가 나오는 것을 믿기를 바란다. 사업도 마찬가지로이다. 한국에서 사업을 하면 한계가 있다. 국제 사업을 해야 큰 고기를 잡을 수 있다. 그래야지 세계복음화 할 수 있다.

(2) 누가복음 9장 1절부터 10절에 주님께서 알려주신 전도의 방법을 알 수 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직접 뽑으시고 귀신들을 이길 권능과 치유의 능력을 주셨다고 말하고 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주님께서 직접 선택한 제자인 줄 믿기를 바란다. 이미 귀신을 내어쫓을 수 있는 권능을 주셨다. 언약의 말씀만 붙잡고 기도하면 된다. 모든 사람을 누가처럼 영적으로, 육적으로 치유하면 된다.

(3) 누가복음 10장 1절부터 20절은 주님이 알려주신 전도와 선교의 방법이다. 1절만 봐도 그 내용이 나온다. 누가복음 10장 1절에 보면 '그 후에 주께서 따로 칠십 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70인 평신도 중직자를 따로 세우셨다. 평신도, 중직자 사역인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려고 하신 곳에 대신 보내셨다. 그것이 바로 사역자 미션홈 제자인 것이다. 본인이 제자를 선택해서 제자를 찾으러 보낸 것이다.

(4) 각 동네, 각 지역으로 보내셨다. 이것이 순회전도캠프인 것이다. 들씩 보내셨다. 이것은 팀사역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다락방 전도를 성경적 전도운동이라고 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모든 것을 우리가 찾아서 용어를 붙인 것이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성경에 나와 있다. 이번에 70인 합숙 박기를 바란다. 안 받아도 70인 제자이지만 여러분이 70인 제자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성경 말씀을 어떻게 언약적인 관점에서 재해석하는지 깊이 성경을 보는 시간이 될 것이다.

의사 누가는 시대의 틀을 바꾼 모델적인 전도자였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의사 누가는 어떤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기에 이렇게 세상을 변화시킨 주역으로 쓰임 받았는지 알아보려고 한다.

1. 누가의 직업은 의사였지만 단지 육신적인 치유에 그치지 않고 겸손하게 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사람들의 영혼과 마음까지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으로 치유하는 참된 치유전문인이었던 것이다. 그래서 그는 세상을 치유하는 전도자로 쓰임 받을 수 있었던 것이다.

2. 누가는 그리스도의 행적과 초대교회의 행적을 잘 정리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살피고, '예수님이 누군데요? 그 때 무슨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때 어떤 일을 하셨는데요? 이해가 안 되는데 조금 더 자세히 말해주세요.' 적고, 적을 뿐만 아니라 자신과 같이 궁극해 할 사람들을 위해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정리해서 전달했던 것이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살피고 이 말씀을 전달할 수 있을 만큼 절대 시스템을, 자료를 남기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란다.

3. 이방인이며 TCK였지만 모든 언어와 문화를 뛰어넘어 오히려 유대인의 문화와 영적의 틀을 바꾼 다문화 제자였다. 쉽게 말하면 백인, 필리핀, 흑인이 와서 인종, 언어도 다르지만 오히려 잘 배워서 가장 복음을 잘 해석한 것이다. 기록으로 남겼고 그 모든 전도운동을 함께 동행하면서 초대교회의 사역을 정리해서 남겼다.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이다. 여러분을 통해서 이러한 다문화, TCK제자들이 일어날 줄 믿는다. 그래야지 세계복음화를 할 수 있다. 이번에 필리핀 바기오에 다락방신학교에 가서 50명을 만났는데 개인적으로 신앙을 점검해봤다. '가난하고 오갈 곳이 없어서 선교사님이 도와주시니까 신학교 다니겠지.' 생각했는데 그분들이 쓴 신앙고백을 보면서 깜짝 놀랐고 감사했다. 그 안에 예수는 그리스도, 오직 예수, 오직 기도, 오직 말씀, 세계복음화가 써져 있다. 필리핀 분들에게는 꼭 가족이야기가 있다. 선교사님께 왜 가족을 이렇게 중요시 하냐고 물어보니까 필리핀의 문화는 가족애가 끈끈하다고 한다. 그러니까 이해가 되더라. 이러한 제자, 세계 곳곳 237개 나라에서 찾아내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란다.

4. 의사 누가는 자신의 전문성을 통해서 데오빌로와 같은 서밋에게 복음을 전한 복음 엘리트였다.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과 후대 랩넛트들과 모두 사랑받는 의사 누가, 데오빌로와 같은 응답을 받기를 축원한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연약한 저희인데 복음을 알게 하시고 누가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붙잡아야 할 복음과 전도, 선교의 방법을 알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응답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성도들과 이 메시지를 듣는 모든 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우리 후대들이 누가와 같은 인물이 되게 하시며 데오빌로와 같은 인물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